

금융정책협의회  
보도자료

## 證券市場 動向 및 對應方案

2002. 6.27

재 정 경 제 부  
금융감독위원회  
한 국 은 행

## I. 최근 증시 동향 및 평가

### 가. 동향

□ 우리 주가는 지난 9.11 테러이후 6개월간 미국 증시와 차별되면서 상승세를 시현(4/18 937.61)하였으나, 4월 중순 이후 미국 증시불안이 지속되면서 조정 국면

○ 특히, 6.26일에는 미국 증시의 급락영향 등으로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

\* 주요국 주가변동율 : 거래소 -7.2%, 코스닥 -8.5%, 일본 -4.0%,  
싱가폴 -2.2%, 홍콩 -2.4%, 대만 -3.6%  
프랑스 -1.7%, 독일 -2.5%, 영국 -2.2%

\* 6.26일 미국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보합세 시현(다우 -0.07%, 나스닥 +0.38%)

□ 최근의 경기회복 정도 및 기업실적 개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증시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

○ 거래소는 701p까지 하락, 코스닥은 56p까지 하락하는 등 금년 최저 수준으로 하락

	9.11테러당시 최저	01 말	02.5 말	6.26	연중 최고
거래소	468.76	693.70	796.40	701.87	937.61(4/18)
코스닥	46.05	72.21	69.78	56.63	94.30(3/22)
다 우	8,235.81	10,021.50	9,925.25	9,120.11	10,635.25(3/19)
나스닥	1,423.19	1,950.40	1,615.73	1,429.33	2,059.38(1/4)

## 나. 주가급락 원인

### □ 기본적으로 미국증시의 불안 가속화로 투자심리 위축

○ 반도체, 컴퓨터 관련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분식회계 등 경영투명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 확산

- 특히, 6.25일에는 월드컴의 회계조작 쇼크 등으로 나스닥이 9.11 테러 수준까지 하락

\* 6.26일 우리 증시 개장중 나스닥선물이 4.4%까지 급락함에 따라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에 선행하여 하락

### □ 우리 주가 하락 폭이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주식거래 관행 및 손절매 등에 기인

○ 사이버 거래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단기매매 관행으로 인해 외부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

- 국내 기관 및 개인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65%이나 거래대금에서 비중은 90%를 상회

○ 최근 주가급락(금년 최고대비, 거래소 -19%)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절매(loss cut)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

- 손절매에 대해서는 리스크방지 차원에서 IMF 이후 내부 통제절차가 대폭 강화되고 외부감독이 엄격화

\* 대부분 금융기관의 경우 손절매 유보는 금융기관 내부의 투자심의회 및 리스크관리심의회(이사회내 위원회)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

□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 내에서의 자금수급 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내재

- 가계금융 자산의 60% 정도(미국 : 10%)가 금융기관 예금 형태로 저축되고 있으며, 금융기관은 주식보다는 대출, 채권 등 부채형 금융상품(debt instrument) 위주로 운용

\* 은행의 주식운용 패턴(02.3말, M2대비 비중) : 2.0%

\* 가계 금융자산중 주식비중(2000말) :

미국 45.8%, 프랑스 45.8%, 영국 23.4%, 일본 7.1%, 한국 8.6%

- 특히, IMF 위기 이후 은행권으로 자금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가계대출 및 채권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주식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\* M3 구성 (97말 → 02.2말) : 은행 259조원 → 510조원

투신 135조원 → 91조원

보험 93조원 → 130조원

⇒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평가, 채권은 고평가되는 불균형 발생

### Ⅲ. 향후 대응방안

- ◇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 기관투자자의 시장지지기능을 강화
- ◇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불균형한 수급구조개선을 위한 증시환경 마련

#### 단기 대응방안

- 최근 주가폭락은 우리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  - 경기회복세와 우리 기업의 실적개선 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된 상태
    - \* 주가수익비율(PER ; MSCI지수대상기업기준, 2002.5말기준)
      - 미국 19.7, 한국 8.8
  - 증시하락에 따라 고객예탁금이 일부 감소하고 있으나, 투신등 금융기관의 수탁고는 큰 변화가 없음
    - \* 고객예탁금 : 10.2조원(5월말) → 9.5조원(6.25)
    - \* 투신 주식형 수탁고 ; 9.1조원(5월말) → 9.3조원(6.25)
-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공기업·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증자 시기·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

## □ 기관투자자의 시장지지기능 제고

① 최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  
운용현황을 점검

② 금융기관 손절매(loss-cut) 제도의 운용을 점검하고  
필요시 보완방안 검토

③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제도(Investment Pool)의 자산운용  
방식 등을 대폭 개선(기획예산처 협의)

- 현재는 채권위주로 운용하고 있으나, 주식형투자상품  
허용등 주식투자를 확대

\* Investment pool 운용현황 : 예탁규모 1.7조원(6.15현재)

채권	주식	기타	합계
1.3조원	0.08조원	0.32조원	1.7조원

- 투자폴에 참여하는 개별 연기금에 대해 주간운용사의  
자금운용자문을 받도록 의무화

· 자금성격 및 스케줄에 맞춰 예탁될 수 있도록 하여  
예탁자금의 단기투자를 방지

④ 금년도 연기금의 기금운용계획상 주식투자가 조기에  
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

## **증장기 대응방안**

□ 주식투자가 믿을 수 있고 매력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 
증시기반 조성

○ 증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 
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

○ 배당제도 개선을 통한 주식수요 확충 도모

- 시가배당을 공시를 의무화하고 배당결의이후에 배당받을  
주주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배당절차를 개선

□ 증시수요기반의 지속적 확대추진

○ 노사정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기업연금제도 조기 도입  
논의를 본격화

- 현재 노사정 기업연금제도 실무소위원회가 구성(4.17)되어  
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중

⇒ 노사정위원회에 기업연금도입여부를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

- 자산운용통합법 제정을 통하여 은행신탁, 투신등 자산운용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
- 자산운용통합법 제정을 통하여 선진국과 같이 개인의 금융자산운용이 은행에서 자산운용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
  - \* 대출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은행에 자금이 집중될 경우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시정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데도 한계
- 특히,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여타 자산운용기관과 같이 대출업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자산운용통합법 제정시 반영